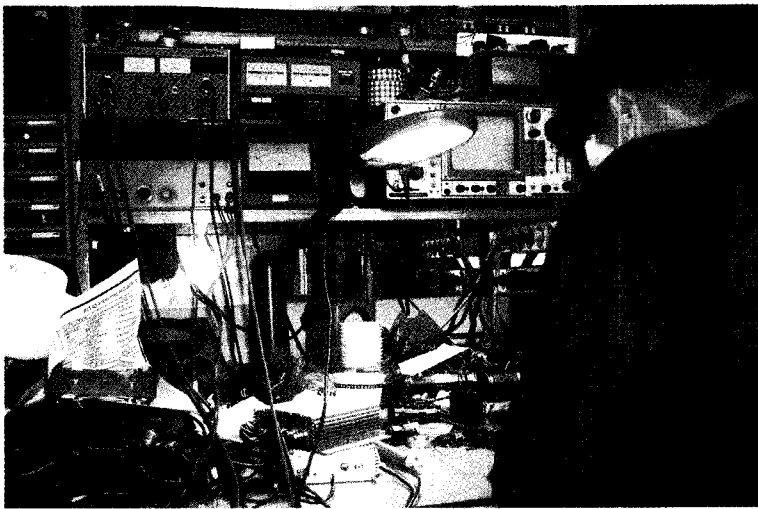


오직 고객의 눈높이를 위해 인공 위성도 만든다는

어느 세운상가 기술자 이야기

신 동 민 | 미디어 다음 기자 media_dongmin@hanmail.net

무엇이든 고치고 만들 수 있는 곳 - 세운상가, 돈만주면 잠수함이나 인공위성도 만든다는데 과연 이런 소문은 어디서 흘러 나온 것일까. 거기엔 오직 고객을 위해 밤을 새워 쌓여진 기술자들의 이야기가 묻어있다. 그러나 청계천 고가도로 재개발로 인해 세운상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추억의 세운상가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특별한 곳, 세운상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세운상가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남아 있다. 국내 대기업도 만들지 못하는 정교한 일제 카세트플레이어를 복제한다는 풍문도 떠돌았고, 심지어 “돈만 주면 잠수함이나 인공위성도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

다. 세운상가를 둘러싼 이 같은 소문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가 기술력의 원천

“살기 위해 더욱 기계에 매달리고, 사무실 골방에서 밤을 새워 기계와 씨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쌓인 거죠.”

세운상가에서 22년째 음향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영음사 심승용(45) 사장은 생계문제를 세운상가 기술력의 원천으로 꼽았다.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김수용(40) 씨도 경제적인 문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주문받은 기계를 만들고, 수리해야 돈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간혹 어디가 고장 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고객 앞에서는 자신있게 고쳐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밤을 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세운상가 기술자들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고객의 눈높이를 위해서

세운상가 사람들은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다. 전자 회로를 제작하는 특수전자 설영배(46) 사장은 “요즘에도 미국과 일본 등의 최신

서적을 구입해 공부한다”며 “덕분에 신형 반도체를 활용한 제품도 설계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산업자동화시스템 등을 수리하는 세진엔지니어링 김영섭(54) 사장은 “진공관 제품부터 반도체 제품까지 모두 독학으로 공부했다”며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어떤 나라 제품도 다 고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어떤 재료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주위 환경도 큰 도움이 됐다. 스페이스전자 고상훈(33세) 씨는 “1967년 상가가 건설될 당시 부품 수입상과 판매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구와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며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의 세운상가 기술자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상가 기술자들은 대부분 독학으로 기술을 익힌다. 소문난 기술자들 중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학 교수나 산업체 연구원들도 수시로 세운상가를 찾아와 조언을 듣고 간다. “이런 기계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의 주문을 듣고 백지에 회로도를 쓱쓱 그려나가는 기술자들도 여럿 있다. 대학 강사로 초빙 받기도 한다.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 때에는 각 행사장의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다.

세운상가는 어떻게 변화할까

세운상가 기술자들은 대체로 기술력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파기기를 다루는 강모(45) 씨는 “세운상가 기술자들을 단순수리공 정도로 무시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고 씁쓸해했다. 각종 반도체 기기를 제작하는 성모(46) 씨도 “기술자를 천대하는 분위기 탓에 후진 양성이 어렵다”며 “뛰어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세운상가

를 떠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서 세운상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지역을 정보기술(IT) 밸리로 꾸민다는 계획을 발표,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지도 관심거리다. 안팎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세운상가. 추억의 세운상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

